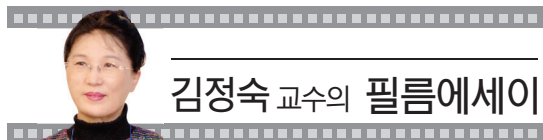


희망의 언어로 써 내려간 ‘다름의 이해’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이미랑 감독 ‘딸에 대하여’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기쁨은 대한민국을 독서 열풍으로 몰고 가는 선순환을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필자 역시 하룻밤에 한 권씩 대한민국 젊은 작가의 소설을 섭렵했다. 이 몰입은 건강상 한두 주로 끝나고 말았지만, 신에 작가들에게 갖는 사랑스러움은 믿음과 함께 한껏 부풀어가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독립영화를 찍는 젊은 감독들의 소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다. 독립영화 ‘딸에 대하여’도 김혜진 작가의 장편소설 ‘딸에 대하여’ (2017)가 원작이다.



영화는 주인공인 나(배우 오민애)의 일상에서 시작한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사는 나의 일상은 매우 조용하다.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 이재희 여사(배우 허진)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정체성과 외동딸(배우 임세미)의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나. 나는 요양보호사로서 성심껏 제희 여사를 돌본다. 주변사람들로부터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소리를 들어가며, 딸아이가 집문제 해결을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출 방법이 없게 되자 집으로 들



이미랑 감독 ‘딸에 대하여’.

아토(ATO) 제공

어오라 말한다. 집으로 이사온 딸아이는 그녀의 오랜 동성연애자인 여자친구(배우 하윤경)와 함께인지만 나는 말문이 막힌다. 그들은 서로의 애칭으로 ‘레인’과 ‘그린’이라 부르고 있었다. 쿼어 여성 커플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보다 엄마의 심정은 더욱 참혹하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는데? 혼인신고 할 수 있니? 자식은?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냐고.”, “엄마 같은 사람들이 못하게 막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설상가상으로 딸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대학에서 해임된 선배강사를 위해 투쟁하는 중이라, 나는 이를 극구 말리기까지 한다. 딸은 엄마의 가르침대로 소신껏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구느냐며 반박한다.

정상 가족이라는 사회 안전망을 거부하고 불안정한 삶을 사는 딸이 나는 갑갑하기만 하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나도 딸과 똑같은 면을 갖고 있다. 평생 장학사업에 자신의 재산을 다 바친 제희 여사에게 이재희 재단의 후원금이 중단되자 요양원에서는 예전과 다른 처우를 시작한다. 급기야는 무연고자 치매 시설로 보내어지고 만다. 내가 아무리 항의를 하고 여기저기 찾아가서 막아보려 해도 소용이 없는 일. 어쩌면 딸아이의 미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 낙담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나 역시 포기하지 않는다. 무연고 여성 노인의 현실과 쿼어 여성 커플의 미래를 요양보호사이자 부모인 중년여성의 시선을 통해 그려나가는 감독의 영상언어가 꽤나 가슴을 내려앉게 한다.

한개인의, 한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들이 구성된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건드림으로써 예사로 바라볼 수 없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였다.

여성, 돌봄노동, 불안정한 노동시장, 성소수자 차별 등 한국사회의 그늘진 맥락을 갈등으로써 집어주는 영화 ‘딸에 대하여’는 연속 전개된 갈등들 속에서 몇 가지의 단초들이 희미한 희망의 언어로써 쓰이고 있었다. 먼저, 자식 하나 없는 무연고 노인에 대한 측은지심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훌륭함이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다는 안타까움이다. 금기시 되어왔고 해고까지 당할 만큼 사회와 부모를 갑갑하게 만드는 쿼어 커플에 대한 이해의 시선이란 어떤 것인지 일말의 답을 영화는 몇 개의 신으로 응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딸과 레인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친구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신. 그리고 레인이 만든 빵을 제희 할머니가 맛있게 먹을 때 모두들 기뻐하는 신 등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았다. 원작자인 김혜진 작가는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내가 아닌 누군가를 향해 가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들에 대해 쓰고 싶었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해하려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이미랑 감독 역시 “이해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강조한다. 제50회 서울독립영화제가 11월말에 시작된다. 압구정CGV에서 세 차례 정도 상영되는 이 영화가 장편경쟁에서 좋은 상을 받기를 바라며...

백제예술대 명예교수



폭염이 지나간 자리



취재수첩

나다운

취재1부 기자
dawoon.na@jnilbo.com

9월 중순까지 이어진 길고 긴 무더위가 가고 외투를 여미게 되는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다. 높고 푸르른 하늘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가 무색하게도 우

리는 여전히 지난여름 겪은 ‘이상기후’의 여파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 기후 변화가 불러온 폭염과 집중호우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올여름 발생한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는 전국 각지의 농작지와 주거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바다에는 고수온 현상이 나타나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어류의 서식지를 변화시키는 등 해양 생태계를 뒤흔들었고, 양식장에서도 고수온으로 인한 집단 폐사가 속출했다. 당연히 하계도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

는다. 이상기후 여파로 농산물 작황이 급감하고 어획량이 줄어들며 ‘밥상물가’ 폭주가 시작됐다. ‘금사과’, ‘금상추’, ‘금배추’에 이어 ‘금전어’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 편히 구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 밥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각종 먹거리들이 폭염으로 인한 식량 가격 급등 현상을 칭하는 합성어 ‘히트플레이션(열(Heat)+인플레이션(Inflation))’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생산량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도 그 예시를 찾을 수 있다. ‘2090년에는 고랭지 배추를 더 이상 맛볼 수 없게 될지

도 모른다’는 것. 기상청의 기후변화시나리오(SSP5-8.5)에 따르면 강원도 내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태백의 연평균 최고 기온은 △2021년 14.6도에서 △2051년 16.9도 △2071년 18.4도 △2091년 20.4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여름 배추 재배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기온이 오르는 셈이다. 농촌진흥청은 이상기후로 인해 전국적으로 고랭지 농업이 가능한 곳이 크게 줄고 있는 데다가 세균·바이러스 병해가 생기는 규모와 빈도가 늘고 있어, 2050년에는 고랭지 배추 재배 적지가 눈에 띄게 줄고 2090년에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한국이 심각한 식량 위기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

려도 나온다.

이상기후는 한 계절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일시적인 식품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사회 전반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후 변화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및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어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생태계 보호·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여름을 여름으로, 가을을 가을로, 한 계절을 그쳐 아름다운 한 계절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